

# 증시 활황… 주식담보 대출도 급증

광주·전남·북 대출액 380억… 4개월새 200억 늘어

투자자들, 주가상승 기대… 주식 처분 않고 재투자

올들어 국내 증시의 활황세로 인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향후 주가상승을 기대해 유가증권을 처분하기보다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주식에 대한 재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한국증권금융 광주지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광주지점을 통해 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한 호남지역 고객은 총 225명에 대출잔액은 38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6천800만원이지만 개인 최고대출규모는 50억원에 이른다.

증권담보대출 잔액은 2005년 말 13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 17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 3월까지도 18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증권담보대출 잔액도 크게 늘기 시작해 4개월이 채 안돼 지난 3월 대출잔액 180억원에 비해 111%

인 200억원이나 폭증했다.

이처럼 증권담보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주식 보유자들이 향후 장세를 긍정적으로 판단,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자신하며 대출금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5월초부터 증권사의 미수금제도가 폐지되고 정부가 신용융자 억제에 나선 것도 증권담보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증권담보대출이란 주식이나 채권, 수익증권(펀드)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로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개인은 150억원, 법인은 300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특히 개인은 5억원 까지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도 연 6.4~9.0%로 저렴한데다 취급 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인기를 끌고 있다.

담보비율은 상장주식의 경우 주당 시가의 50~60%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즉 대출신청 당시 시가 1억원 만주가 예탁돼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6천만원까지 대출이 되는 샐이다.

한국증권금융 정규철 광주지점장은 “증권담보대출 제도는 증시 기반 확충은 물론 고객에게 자산 증식의 효과가 있다”며 “고객 대부분이 장기 대출을 받고 있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전전략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 광주지점에는 고려시멘트, 와이엔텍 등 지역 상장사 5개사와 현대삼호중공업 등 비상장 7개사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460만주가 예탁돼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금융당국 “주가 폭락땐 피해… 대출기준 강화”

증시 활황에 힘입어 금융권의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 급락 때 대출자와 금융회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짐작하고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금융회사의 주식 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대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18개 저축은행의 주식 매입자금 대출 잔액은 3천81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64.5%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증권계좌를 만든 고객에게 계좌 잔고 평가액의 3~5배를 주식매입자금으로 빌려줄 수 있다.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잡는다.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2조5천579억원으로 65.2% 늘었다.

현행법상 은행은 저축은행처럼 주식매입자금의 대출은 못하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식을 담보로 가계·기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연합뉴스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年内 100만대 넘는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에는 해외생산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 상반기 각각 43만5천629대, 12만424대 등 총 55만6천53대를 미국, 인도, 터키, 중국, 슬로바키아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했다.

지난해 현대차는 84만4천409대, 기아차는 12만433대 등 100만대에서 3만5천여대 가량 모자란 96만4천842대를 생산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 상반기 규모로 하반기에도 생산할 경우 해외 생산 100만대를 쉽게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현대차는 지난 4월 연산 6만대 규모의 터키공장을 10만대로 늘렸으며, 오는 11월께부터 연산 30만대 규모의 인도 제2공장의 가동을 시작, 해외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아차 역시 오는 10월 말부터 3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중국 2공장을 완공한다. 기아차는 일단 15만대 생산체제로 중국 2공장을 운영해 나가되, 2011년부터 연 30만대를 생산한다.

따라서 올해 해외생산 100만대 돌파는 물론 150만대에 유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 26.56P↑ … 1930 회복

### 외국인 매도세 한풀 꺾여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했다.

지난달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6.56P(1.39%) 오른 1933.27로 장을 마쳤다.

뉴욕증시가 긍정적인 기업 실적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가 호전됐다. 외국인들은 순매수 흐름을 보이다 오후 들어 순매도로 돌아서 1천251억원을 팔아치웠다. 12일째 순매도다.

개인은 1천369억원어치를 사들인 반면 기관은 888억원어치를 팔았다. 기관 가운데 기금에서 1천293억원의 대규모 순매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업종별로는 주도 업종없이 대체로 고른 상승세였다. 통신·은행업종 지수만 하락했으며 건설과 운수창고업

종 정도가 각각 3.98%, 5.59% 올랐지만 새로운 호재가 눈에 띄지는 않았다.

코스피시장도 전일대비 17.33P(2.18%) 오른 811.52로 장을 마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9억원과 245억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457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러나 이번 상승이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 이현주 애널리스트도 “가격부담을 급격하게 해소한 이후 저점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자연스러운 반등을 보이고 있다”며 “반등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7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김남재 한아에쎄스 대표

##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앞장

### 동력 퇴비살포기 히트

올 매출 120억원 기대

###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국내시장 40%에 머물고 있는 동력퇴비살포기 등 침유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한 ‘7월의 자랑스런 중기인’상을 수상한 김남재(53) 한아에쎄스(주)(광주시 광산구 장북동) 대표는 “특히 지난해 3억원에 그쳤던 수출규모를 10억원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기계도안학과를 나와 지난 92년 한아에쎄스를 설립한 김대표는 저상형 농업용 물삭기로 출발, 95년 동력퇴비살포기와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히트작을 잇따라 만들어냈다.

이어 95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함께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동력액상비료살포기·다기능 동력운반차·승용형 제조기 등 7개 품목 16기종의 친환경농기계를 개발·보급했다.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무한궤도형

‘7월의 자랑스런 중기인’상 시상식이 지난달 31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김남재 한아에쎄스 대표,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

/고경석기자 kgso@kwangju.co.kr

승용작업차, 농업용 1t 다기능 운반기, 농업용 다기능 작업차에 적합한 동력취출장치 등도 한아에쎄스의 대표작들이다.

김 대표는 “인체의 관절형상에 착안, 개발해낸 집중식 약제살포기는 중기청의 성능인정과 함께 조달청이 선정하는 ‘우수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거리 방역방제기로도 통하는 이 제품은 관절시스템에 강력한 송풍기능을 적용,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완벽한 방제작업이 가능하다. 이미 조류독감 및 구제역 방역, 수목 방제작업, 도시 방역작업, 산불화재 초기진화 작업 등에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45명의 직원을 보유한 한아에쎄스의 매출은 2005년 95억2천500만원, 2006년 94억9천만원에 이어 올해 120억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사회·경제과목 교사 40명

금융분야 직무 연수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금융분야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사회·경제과목 중등교사 40명으로 직무연수는 광주은행 본점에서 총 30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교사들의 금융교육 능력개발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직무연수에선 금융시장 현황과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분야의 특성별 이해 등이 소개된다.

연수과정은 수료한 교사에게는 해당 시·도 교육청이 인정하는 연수학점(2학점)이 부여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클라우드**

... CALL ...

부천기지 출생률, 충전기능까지...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IT 환경~

KT파워텔 010-526-0130

**한일기 태리호로!**

한일기 태리호

한일기 태리호

한도 광주 무궁나루버스운행

한일기 태리호 태리호 태리호